

새로운 식구가 생겼습니다

충주 현대성우메탈지회 설립!

충주에 새 식구 탄생

충주에 금속노조의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 충주 용탄동에 위치한 현대성우메탈지회가 설립된 것이다. 지부는 18일 현대성우메탈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회 설립을 선포했다. 현대성우메탈지회 김희수 지회장은 조합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회사와堂堂히 맞설 수 있는 민주노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복수노조 상황이지만, 정정당당한 경쟁할 것

현대성우메탈에는 기존에 한국노총 소속의 노동조합이 존재한다. 그러나 외주화/불법도급에 대한 적절한 대응 투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새롭게 금속노조를 설립한 동지들은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노동조합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고용안정을 지키고, 현

장 조합원들의 권리를 지키는 싸움에는 한국노총과도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다. 복수노조 상황이지만,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싸움에는 너나없이 함께 하겠다는 것이다. 사측의 부당한 개입만 없다면 정정당당하고 아름다운 경쟁을 통해 현장을 바꿔나가는 민주노조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신규지회 같이 챙기자!

지부에 오랜만에 신규지회가 설립됐다. 복수노조라는 조건에서 조합활동을 펼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동안 우리는 복수노조로 어려움을 겪는 지회들을 많이 보왔다. 현대성우메탈지회가 똑같은 어려움을 덜 겪을 수 있도록 선배 지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하자. 이제 막 시작한 지회가 최대한 빨리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부 전체가 함께 나서자.



재벌개혁법, 제조업발전특별법, 노조파괴 금지법 생추!

금속노조가 입법 생추를 위한 투쟁을 국회 앞에서 벌인다. 노조는 그동안 전국순회 투쟁문화제를 통해 금속노조의 올해 입법 요구안에 대한 쟁점화 사업을 벌여왔다. 지부도 지난 4월 20일 청주에서 행진과 투쟁문화제를 통해 노조 파괴 금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폐기,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한 바 있다. 전국에서 벌어진 순회투쟁의 힘을 하나로 모아 국회 앞에서 금속노조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연다.

금속노조는 올해 불평등의 원인인 재벌을 개혁하고, 국내 제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요구하며, 노조파괴를 금지하기 위한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 이번주 일정 *

- **충주 현대성우메탈지회 설립 보고대회**
5/22(월) 17:30 현대성우메탈 앞
- **금속노조 요구 쟁점화 전국 확대간부 결의대회**
5/24(수) 14:00 갑을 본사
16:00 서울 여의도 일대
- **지부 7차 교섭**
5/25(목) 15:00 KDK